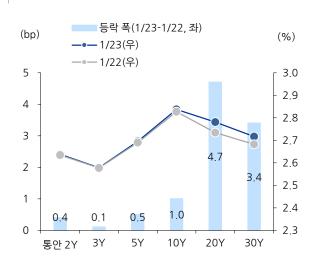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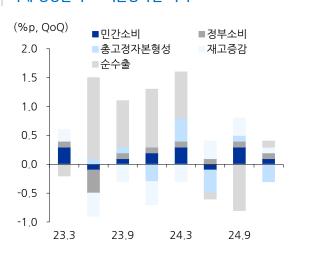


_								
	Fixed	d Income			(단위	: %,bp, 틱)		
			1/23일	1D	1W	YTD		
		한국 국고채 3년물	2.578%	0.1	-4.8	-1.8		
	-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37%	1.0	3.5	-1.8		
	국내 채권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5.9	25.0	17.6	25.9		
		3년 국채 선물(KTB)	106.93	4.0	23.0	28.0		
	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34	-3.0	83.0	142.0		
		미국채 2년물	4.292%	-0.8	2.7	5.3		
	해외 채권	미국채 10년물	4.645%	3.3	-0.9	6.0		
	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5.3	31.3	38.9	34.6		
		독일국채 10년물	2.546%	1.8	0.1	18.1		
		호주국채 10년물	4.468%	0.6	-3.3	10.0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성장률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미국채 금리가 트럼프 관세 관련 발언에 상승한
 영향을 받으며 약세 출발
- 장 중 국내 4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 인하 기대 강화,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 중심 매수 확대. 중단기 금리 중심 반락
- 오후 중 수급 부담으로 장기물 중심 약세 심화. 기재부, 31일 30년물 8천억, 50년물 2천억 규모 모집 실시를 발표. 2월 국발계 경계도 지속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트럼프, 취임 후 처음으로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압박.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져야한다고 강조. 이 에 단기 금리는 소폭 하락
- 장기금리, 전일 관세 관련 경고 여파 이어지며 상승. 대 신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 유가 인하를 요구할 것 이라는 트럼프 발언에 약세폭은 제한.
- 금리선물시장은 3월까지 25bp 인하 확률을 전일 대비 2.4%p 가량 상승한 27% 수준 반영
- 금일 미국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, 유로존 1월 PMI 등 발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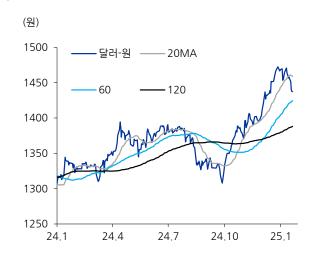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						
		1/23일	1D	1W	YTD	
	원/달러	1,437.30	-0.0%	-1.3%	-2.4%	
	달러지수	108.11	-0.1%	-0,8%	-0.3%	
	달러/유로	1.042	0.1%	1.2%	0.6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29	0.1%	-0,8%	-0.7%	
	엔/달러	155.97	-0.4%	0.5%	-0.7%	
	달러/파운드	1,235	0.3%	1.0%	-1.3%	
	헤알/달러	5.92	-0.3%	-2.2%	-4.2%	
	WTI 근월물(\$)	74.28	-1.5%	-7.2%	3.6%	
상품	금 현물(\$)	2,753.79	-0.1%	1.4%	4.9%	
	구리 3개월물(\$)	9,237.00	0.1%	0.1%	5.3%	

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0.30원 하락한 1,437.3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3.70원에 마감.
- 간밤 달러는 모처럼 소폭 반등했고 달러-원은 강보합권에서 개장. 아시아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대한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았음.
- 장중 조선업체의 수주 소식 등을 소화했으나 BOJ 회의 등을 대기하며 방향성 없이 양방향 수급 소화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하락.
-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OPEC에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할 것이며, 그 이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 언급. 동 연설에서 역대 최대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관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음.
-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.3만 건으로 전주 대비 0.6만 건 증가. 연속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대비 +4.6만 건 급증.
- 금일 BOJ 금정위 금리 인상 가능성 유력하나 시장에 선 반영된 만큼 향후 정상화 속도에 대한 언급이 관건이 될 전망.